

# 한민족 복지재단 소개

김 용 혁 주임 / 국제팀장

## 1. 설립 목적

총회 개최

한민족복지재단(회장: 김형석)은 1991년 ‘사랑의 의료품 나누기’를 모체로 1997년 2월 3일 외교통상부 등록재단법인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을 통해 민족 화해를 실천하고 있으며, 국내외와 북한의 소외 계층 어린이를 돕고 도움이 필요한 지구촌 곳곳에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5년 1월에는 UN ECOSOC(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특별협의지위’로 등록되어 활동 중인 한국의 대표적인 NGO단체입니다.

## 2. 재단 연혁

### [ 2006년 ]

- 2006. 3. 재단 전복지부 개소식
- 2006. 3. 태국 치앙마이 주에서 ‘산캄팽비정규 교육센터 지원사업’ 개시
- 2006. 2. 사회복지법인 ‘말아톤복지재단’ 창립

### [ 2005년 ]

- 2005. 12. 예멘 사다 지역에서 ‘사다병원 현대화사업’ 개시
- 2005. 12. 북한 ‘복토직파기를 사용한 농업협력사업’ 개시
- 2005. 11. 제3회 한국일보 주최 통일문화대상 화해협력부문 수상
- 2005. 10. 기독교TV(CTS TV)와 공동으로 ‘북한어린이에게 평화의 분유를’ 특집 모금 방송
- 2005. 10. 파키스탄 지진 피해 긴급구호활동
- 2005. 9. 미국 뉴올리언즈 카트리나 긴급구호활동
- 2005. 9. 재단 광주지부 개소식
- 2005. 6. 수단 카르툼 지역에서 ‘농업기술학교를 통한 농촌개발사업’ 개시
- 2005. 6. 국내복지사업 ‘사랑의 말아톤 2’ 캠페인 시행

- 2005. 2. 스리랑카 트린코말리 지역에 ‘희망의 집 건설사업’ 개시
- 2005. 1. 북한 ‘복토직파기를 사용한 농업개발사업’ 개시
- 2005. 1. UN ECOSOC(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로 등록

#### [ 2004년 ]

- 2004. 12 - 2005. 1. 스리랑카 트린코말리 등 3개 지역 쓰나미 피해 지역에 긴급구호팀 파견
- 2004. 4. 북한 용천열차폭파사고 긴급구호활동
- 2004. 4. 제8회 정일형 이태영 자유민주상 민주 통일부문 수상
- 2004. 3. 이라크 바그다드에 재건사업팀 파견

#### [ 2003년 ]

- 2003. 12. 아프가니스탄 데야혀 지역 ‘중계장 건립 및 양계 교육을 통한 농촌개발사업’ 개시
- 2003. 12. 이란 대지진 발생지역인 밤(Bam) 시에 긴급구호팀 파견
- 2003. 8. 아프가니스탄 수로비 지역 ‘수로건설 사업’ 개시
- 2003. 5. 평양의학대학병원에 어린이심장병센터 설립 및 시술(서울대병원과 제휴)
- 2003. 4. 이라크 의료봉사단 파견 및 ‘난민돕기 사업’ 개시

#### [ 2002년 ]

- 2002. 12. 중앙일보 및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2003 북한어린이에게도 따뜻한 겨울을’ 캠페인 진행
- 2002. 12. 대한민국 통일부로부터 공식 대북지원 창구로 승인
- 2002. 10. 대한민국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회원단체로 공식 등록
- 2002. 3. 우즈베키스탄 고아원지원 및 아프가니스탄 의료봉사단 파견

#### [ 2001년 ]

- 2001. 5. 국민일보와 ‘북한어린이돕기’ 캠페인 시행

#### [ 2000년 ]

- 2000. 12. 평양시 중구역 동성동에 어린이급식 빵공장 준공
- 2000. 11. 북한 인민학교 학생 집단구충사업 개시(한국건강관리협회와 제휴)
- 2000. 8. 동아일보와 ‘북한어린이돕기-평화의 빵’ 캠페인 시행
- 2000. 4. 북한 보건성과 ‘북한어린이돕기 5대사업’ (어린이병원현대화, 어린이심장병센터, 어린이급식사업, 사랑의의료품나누기, 사랑의생필품나누기) 합의

#### [ 1991년 ~ 1999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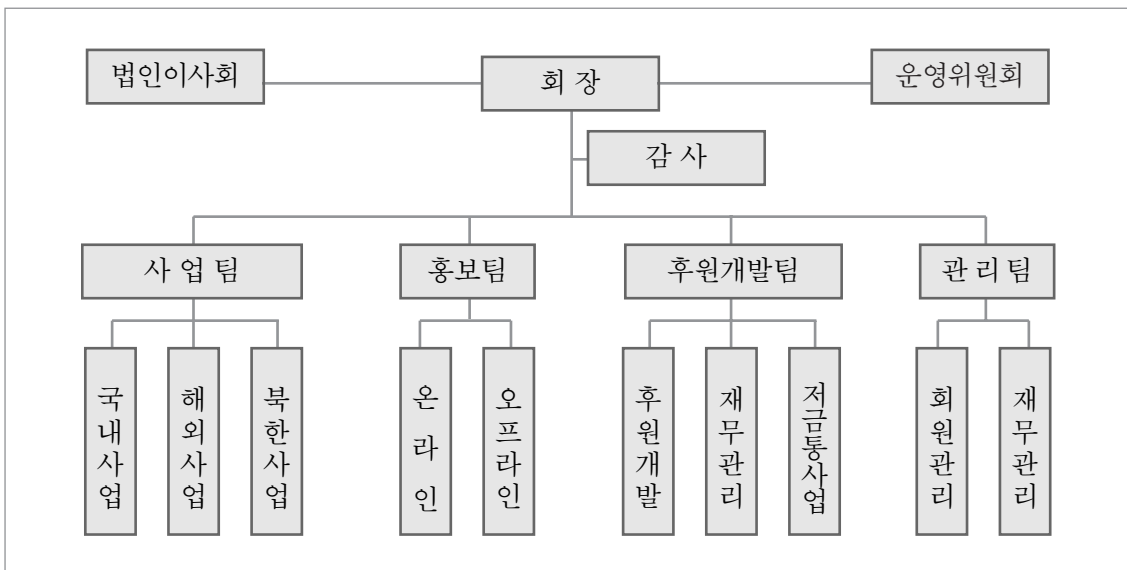
- 1997. 11. 한국 NGO 중 최초로 방북하여 라진-선봉지역에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 시행

- 1999. 9. 재정경제부로부터 공익성 기부금 대 상단체로 지정
- 1999. 7. 러시아 연해주 의료봉사단 파견
- 1998. 4. 통일부로부터 사회문화분야 남북협력

사업자 승인

- 1997. 2. 외교통상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인가
- 1991. 3.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의 료품 나누기'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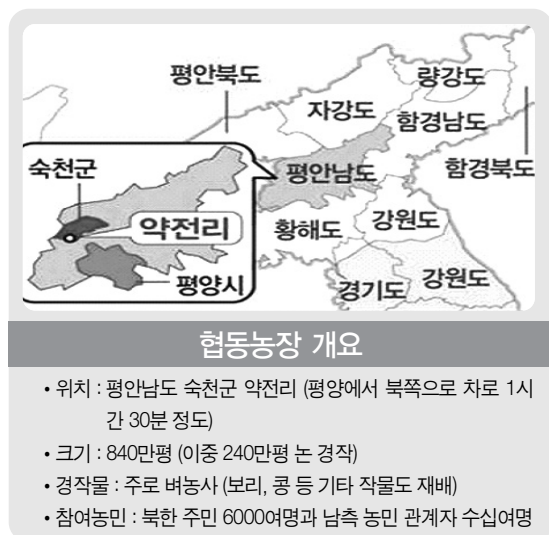
### 3. 한민족 복지재단의 조직구성



### 4. 한민족복지재단 주요 사업

#### 가. 북한지원사업

- 1) 농업협력사업 식량난과 함께 농자재 부족에 시 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2005년 12월부터 한민족복지재단은 복토직파농법(못자 리와 모내기가 필요 없는 농법)을 개발한 농업 진흥청 산하 한국농업학교 박광호 교수와 협력 하여 북한에 새로운 농업기술과 농자재를 전수



하고, 평안남도 속천군 약전리의 840만평 크기 협동농장에서 남북의 농민이 협력하여 농업사업을 전개해 왔다.

## 2) 의료지원사업

### ① 평양의대병원 현대화사업

- 2000년 11월부터 서울대학교병원과 협력하여 평양의대병원 구내에 의료설비와 기술을 전을 통한 어린이심장병센터를 설립하고 8차례에 걸쳐 의료 활동을 벌였다. 올해는 2차 사업으로 신장센터와 척추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시설 때문에 환자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 시설들을 개보수해 나가고 있다.

### ② 어린이병원 현대화사업

- 1998년 라진선봉에 소재한 선봉군인민병원의 소아과를 시작으로 평양시 제1인민병원 소아과 병동, 평북도소아병원, 신의주 제1인민병원 소아과 등 13개 도소재지에 있는 낙후된 북한의 어린이병원 시설들을 현대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 내 다른 지역에 있는 어린이병원들을 집중적으로 현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 3) 어린이영양지원사업

### ① 어린이급식사업

- 어린이 영양지원사업은 2000년 8월부터 시작한 급식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어 2000년 12월 고려당과 협력하여 평양

시 중구역 동성동에 어린이빵공장을 설립하고 지속적으로 만오천명의 아이들에게 빵을 공급해오고 있다. 또한, 평양 이외 지역에 제2, 제3의 빵공장을 설립하여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효과적인 영양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 ② 분유지원사업

- 영유아들에게 필요한 분유와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콩우유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평화의 분유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 4) 일반구호사업

- 본 재단은 극심한 생필품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랑의 의료품과 생필품나누기 운동을 펼쳐 왔다. 불안정한 정치적 환경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요즘, 본 재단은 북한 어린이들과 여성들에게 의류와 학용품 등 각종 생필품, 그리고 의약품 및 의료용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왔다.

## 나. 국내복지사업

### 1)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 본 재단은 장애의 범주 안에 들지만 장애인 복지영역에서 소외되고 있는 발달장애 복지사업을 위해 전문인 토론회, 부모교육, 연구위원과 준비위원회 결성, 사랑의 말아톤 2 캠프

페인 선포 등 실질적인 실천을 위한 사전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다. 2006년 2월 16일 발달장애를 특화 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법인 등록에 따른 행정절차와 프로그램 마련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본 재단은 중증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교육을 실시하는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여 청년이 된 발달장애인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개개인의 특성과 개성에 따라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독립 및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후 본 재단은 공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18세 이상의 젊은 청장년 발달장애인들에게 능력에 맞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청장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모델과 사업장 환경모델을 연구 개발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자 준비 중에 있다.

## 2) 미자립시설 지원사업

### ① 벤엘장애인농장

- 수족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 장애인들의 자활과 생업을 위해 본 재단은 전라북도 장수 벤엘장애인 농장에 농장 부지와 과수원 개간에 필요한 운영비 및 생활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 ② 바울장애인훈련원

- 본 재단은 자신도 근육병으로 온 몸이 마비된 상태이지만 다른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컴퓨터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정철영 대

표의 주택 마련 보조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 다. 해외지원사업

- 한민족복지재단은 2006년 6월 현재 14개국에 16개 지부를 가지고 있다.

### 1) 아프가니스탄

#### ① 교육사업

- 2003년 4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 동안 한민족복지재단은 아프가니스탄 고등교육부 장관과 6명의대학총장들을 포함한 교육대표자들을 초청하였으며, 양 국가들 간의 국제교류를 진척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본 재단은 아프가니스탄에 국제교육센터를 설립하였으며, OMR카드와 카드리더기, 500대의 컴퓨터들 같은 교육재료와 장비들을 기증하였다. 이 지원으로 2005년 대학시험부터 아프가니스탄의 고등교육부처는 기계로 대학시험을 채점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카불 인근의 대학들의 20명의 선별된 교수들이 본 재단을 통해 매달 미화 50달러씩 장학금을 제공받았다. 또한 본 재단은 2003년 5월부터 카불공대를 포함하여 아프간 전국의 16개 대학에 컴퓨터 보급사업을 벌여 왔고, 2005년 4월부터 버미안지역에서 문맹학교를 운영하며, 문맹여성 20여 명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왔다. 교육혜택이 전무한 칸다하르 외곽지역에서는 8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 ② 보건사업



- 본 재단은 미국 9.11테러 이후, 의료용품과 의료지원에 대한 아프카니스탄 현지 필요에 부응코자, 2002년부터 매년 의료봉사진을 현지에 파송하였다. 2005년 7월부터는 카불 인근 다쉬케 바르치에서 한방모바일클리닉

을 운영하며 지금까지 6,500명에게 치료혜택을 주었고, 칸다하르지역에서는 2005년 3월부터 물리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약 3,500명의 주민들을 치료하였다. 본 재단 칸다하르 지부의 물리치료센터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칸다하르주정부는 본 재단의 칸다하르지부에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2006년 5월 힐라병원을 개원하여 운영 중이다. 다음은 칸다하르지부장 백규현지부장이 쓴 글이다.

## ③ 지역개발사업

- 2002년 이래 한민족복지재단은 지역공동체

### 한민족 칸다하르에 ‘힐라병원’ 문 열다.

글: 백규현    한민족복지재단 아프카니스탄 칸다하르지부장

5월 10일 오전 10시, 칸다하르 시내에서는 1백여 명의 각계 각층인사들이 모여 힐라병원 개원식을 가졌다. 힐라병원은 3년 전부터 물리치료센터를 열어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백규현 칸다하르 지부장이 칸다하르 지방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현재 아프카니스탄은 진료비 상승과 고비용의 운영비 문제로 많은 병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문을 연 힐라병원도 이전에 외국 NGO에서 운영하다가 이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문을 닫았던 곳이다. 또 병원이 탈레반의 근거지에 자리 잡은 터라 잦은 테러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있는 백규현 지부장 덕분에 힐라병원은 지방정부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은 상태이고 주민들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현재 병원에는 한국의 의사 4명, 필리핀 의사 2명, 아프간 의사 1명과 간호사, 경비, 행정, 청소 요원 등 총 28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13일부터 정상 진료를 시작한 병원은 진료 외에 교육동에서 컴퓨터 교육실, 강의실, 도서관이 있어 직원들의 교육을 돕고, 행정동에는 재정, 행정, 회의, 상담, 의전실 등이 준비되어 있다. 병원 진료 과목은 통증 클리닉,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물리치료과로 구성되어 있다.

병원 개원을 위해 한국의 여러 후원자들이 의료장비와 의료인 등을 지원했지만, 힐라병원에는 아직도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많아 계속적으로 후원자들을 찾고 있다.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수행해 왔다.

a. 수로비 수로건설사업

- 본 재단은 2003년 하반기 동안 한국국제협력단과 협력하여 카불의 수로비지구 테진마을에 수로를 건설하였다. 이 사업은 마을주민들의 농업상황을 개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테진마을은 아편을 재배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따라서 본 재단은 건설이 시작되기 전 마을 주민들과 주민들의 아편재배 중지라는 조건 하에 사업을 실행하기로 동의하였고, 약속한 대로 주민들은 아편밭을 불태우고 공사기간 중에 기꺼이 노동력을 제공하여 주었다. 현재 건설된 수로와 저수지를 통해 마을 주민들은 정상적인 농업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

b. 데야혀 종계장사업

- 본 재단은 2004년 한국국제협력단과 협력하여 카불 시내 외곽의 데야혀지역에서 종계장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의 목적은 지역 주민들이 종계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닭을 분양받아 지역 경제와 주민들 개개인의 소득 증대를 꾀하는 것이었다. 본 재단은 종계전문가들을 파견하여 지역 내 가장 이상적인 위치에 종계장을 건설하고, 종계기술을 농부들에게 교육함으로써, 가난한 농부들에게 병아리들을 무료로 공급할 수 있었다. 현재 종계장은 지역주민들에 의해 스스로 운영되며 지역경제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다.

2) 우즈베키스탄

① 교육사업

- 본 재단은 안그렌과 타쉬켄트에 컴퓨터와 어학학교들을 운영해왔다. 특히 재우즈베크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안그렌지역에서는 안그렌외국어대학내 한국어학부를 운영해왔다. 게다가 타쉬켄트지역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교육과 수화교육을 위한 학교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에 필요한 물품들과 약품들을 기증하여 왔다. 게다가 본 재단의 이전 대표자인 장기천님의 필명을 딴 한길장학재단이란 이름으로, 지금까지 약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여 왔다.

② 보건사업

- 본 재단은 타쉬켄트에 있는 열방친선병원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병원 의료진들을 대한민국에 초청하여 한국의 일반 병원에서 훈련받게 하였다. 열방친선병원의 구체적인 활동들은 이동병원운영, 고아원 진료, 장애인 진료, 의학교육과 세미나, 내국인 무료진료 등이다.

본 재단은 또한 검진과 치료를 위하여 대한민국 의료봉사단을 2차례에 걸쳐 2004년과 2005년 우즈베키스탄의 다양한 지역에 파견하였다. 게다가 샤크노자 키르기즈배바(Shakhnoza Kirgizbaeva)라는 화상 휴유증으로 고통받는 7세 아이를 한국에 보내어, 성공적인 수술을 받게 하였다. 다음은 샤크노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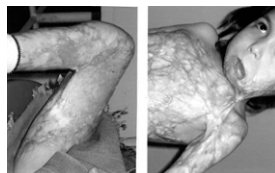
### 웃음을 되찾은 샤크노자의 이야기



본 재단은 2005년 6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요청에 의해 끔찍한 화상 후유증으로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7살 소녀 샤크노자를 치료해 주고자 한국에 초청한 바 있다. 샤크노자의 치료를 위하여 포항 선린병원(이건오 원장)이 전액 무료로 봉사해 주었으며, 어머니와 함께 오고가는 항공편은 아시아나항공에서 후원해 주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들을 가족처럼 챙겨준 손동아목사의 관심이 샤크노자와 소녀의 어머니 스웨따(37)씨에게 웃음을 되찾아 준 힘이 되었다.

“끔찍하게 망가졌던 제 딸의 몸과 얼굴에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딸아이를 다시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고쳐주신 의사선생님과 한국인들에게 수십 수백 번 감사합니다.”

샤크노자 양은 2004년 6월 집에서 부모가 일하러 간 사이 오빠와 놀다가 화덕에 넘어져 목과



가슴, 다리 부분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우즈베키스탄 병원에서는 2차례의 화상치료와 4차례의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그곳의 의료수준이 낮아 상태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샤크노자 양이 한국에 올 당시에는 오른쪽 다리가 구부러져 허벅지와 장단지가 붙어버린 상태였고, 왼쪽 턱도 가슴에 붙은 채여서 고개를 제대로 돌릴 수 없는 등 심한 지체장애아의 모습이였다. 하지만 선린병원에서의 2차례의 성공적인 수술로 샤크노자는 자유롭게 고개를 돌리며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

### ③ 문화사업

- 2004년, 한민족복지재단은 ‘한-우즈베키스탄 우정의 예술제’를 개최하였으며, 게다가 재단 타쉬켄트지부가 2004년 11월 어린이 축제를 열었다.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2명의 우승자들은 2005년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한국을 방문한 고가이 나스차양(13)의 편지이다.

#### 세르젤리학교 7학년에 재학 중인 고가이 나스차의 편지



그 동안의 염려와 기대를 타쉬켄트에 묻어두고 드디어 한국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를 따뜻하고 반갑게 맞이해 주신 분들은 그 동안 정이 많이 들었던 김경일 소장님과 낮이익은 차부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분들에 의해 이미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저희는 안내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청소년 미술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곳에서 저희는 참가상으로 상패와 상금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한국 전통 식당에서의 음식들은 깜짝 놀랄 만큼이나 입에 당기고 맛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분은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고 안아주신 화가 마드모아젤 한이십니다.

한국의 역사를 눈으로 본다는 것을 이곳에 오기까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나 재미있고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여행하는 동안 한국의 날씨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은 해안과 강, 깨끗한 도시, 역사박물관에 가 보았는



데, 특히 한국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빌딩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한민족복지재단>  
가족 여러분과 여러 화가 선생님들, 그리고 본부  
에 계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3) 스리랑카

#### ① 주택사업

- 2005년 3월 이래, 본 재단은 한국국제협력단과 협력하여 스리랑카 동부 쓰나미 피해지역인 어촌마을, 트린코말리에 26채의 희망의 집을 건설하여 지역주민들 26가구가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다.

### 4) 수단

#### ① 교육사업

- 본 재단은 한국국제협력단과 협력하여 2005년 7월부터 수단 카르툼에서 씨니닐 농업기술학교를 건설하여 왔다. 본 재단은 이 학교 내 교육이 수단의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고, 가난한 농업가구들의 수입을 증대시키며, 그들에게 새로운 생활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5) 예멘

#### ① 보건사업

- 본 재단은 2005년 12월 이래 한국국제협력단 및 국제치과진료협회와 협력하여 예멘 사다병원 현대화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이 사업을 위하여 본 재단은 병원에 현대 의료장

비를 제공하고, 환자 의료기록을 전산화해나가며, 새로운 현대 의료기술을 현지 의료진들에게 전수할 계획이다.

### 6) 태국

#### ① 교육사업

- 본 재단은 한국국제협력단과 협력하여 2006년 1월부터 태국 치앙마이주 산캄팜비정규교육센터에서 태국 산지족과 빈민층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컴퓨터와 영어, 태권도와 한국어를 가르쳐 직업을 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센터 보수공사가 마무리된 후, 5월 8일부터 370명의 교육생들을 교육하고 있고, 이 인원은 최대 600명까지 늘어날 계획이다.

### 7) 어린이지원사업

#### ① 꿈나무책가방사업

- 본 재단은 2006년 5월부터 문방구류를 살 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해외 극빈층 아이들에게 문방구류가 들어 있는 책가방을 선물해주는 '꿈나무 책가방'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으로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때 쓸 공책이나 볼펜이 없어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있던 극빈층 아이들이 맘껏 공부해 밝은 미래를 꿈꾸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재단의 태국 지부 산캄팜비정규교육센터에서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는 김민영씨가 쓴 동사업에 관한 글이다.

## 희망을 담은 책가방 선물세트

글: 김민영 태국지부한국어교사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친절한 사람들로 이미 유명한 관광지이자, 노후에 살기 좋은 세계 3대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힌 치앙마이이지만, 치앙마이의 빈부격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크고 화려한 집들이 즐비한 거리에서 한 골목만 뒤로 들어가면 쓰러질 듯한 판자집을 볼 수 있습니다. 극심한 빈부격차로 전체적인 나라경제는 발전했지만, 여전히 가난으로 인해 교육에서 소외된 아이들 또한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무료학교조차도 필기도구를 준비하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한 마음을 안겨줍니다. 한민족복지재단 태국지부에서는 이렇듯 가난으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는 태국의 산지족과 빈민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산캄팽 비정규 교육센터의 문을 엽니다.

“한참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에 푸키(Pukky, 8살)는 엄마와 함께 어린 동생을 돌보고 있다. 푸키가 사는 태국의 치앙마이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무료학교가 있지만, 쓸만한 연필 한 자루 없이 학교를 나가는 것도 여의치 않아 두 달 전부터 학교 가기를 그만뒀다.

11살인 푸키의 언니 역시 돈을 버느라 학교를 못 가기는 마찬가지. 태국 전통 춤을 추는 푸키의 언니는 간간히 있는 공연에 참여해, 공연당 20Baht(500원)를 벌고 있다. 아빠와 언니의 적

은 수입으로 간간히 살아가는 푸키네 다섯 가족은 교육을 받은 사람도 없거니와 의사가 꿈이라는 푸키를 학교에 보낼 생각도 못하고 있다.”

“태국 치앙마이 산캄팽군에 사는 9살 소년 엠은 산마혹 국립학교를 다니고 있다. 지금은 형(18살)이 버는 돈으로 학교를 다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언제 학교를 갈 수 없게 될지 모르는 엠은 딱히 공부를 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없다며 멍쩍게 웃어 보인다. 아빠의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어렵다는 엠은 조금 더 자라면 형처럼 돈을 벌어야 할 거라 생각하지만, 산캄팽 교육센터가 생기면 교육을 받고 싶다며 등록을 희망했다.”

## ② 어린이결연사업

- 본 재단은 2006년 6월부터 해외 빈민층 어린이와 한국인 사이에 후원관계를 연결해 주는 ‘어린이결연사업’을 실시하였다. 결연을 통해 연결된 해외 어린이는 한국민이 보내는 월 일정액의 후원금을 통해 기본적인 의식주와 교육, 의료 등의 후원을 받게 된다.

## 8) 긴급구호

- 본 재단은 지구촌 재난과 전쟁으로 신음하는 이웃들을 돕고자 재난이나 전쟁이 있을 때마다 지구촌 곳곳에 긴급구호팀을 파견하여 왔다. 지금까지 북한 룡천열차폭파사고 구호, 아프가니스탄 전쟁구호, 이란 밤지역대지진 사고, 이라크 전쟁구호, 파키스탄 대지진구호, 쓰나미사태구호 등의 활동을 펼쳐왔으며, 2006년 5월 인도네시아 반톨지진에도 곧 구호팀을 파견할 예정이다.

## 국제개발협력동향 2006년 제2호

---

발행	2006년 7월
편집·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28
전화	(02)740-5114
팩스	(02)744-1092
홈페이지	<a href="http://www.koica.go.kr">www.koica.go.kr</a>
인쇄	마스터-원 TEL. (02)2272-5002(代)

---